

2020년 11월 05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미 대선 불확실성 확대 불구 급등

### ‘블루웨이브’ 실패로 법인세 인상 가능성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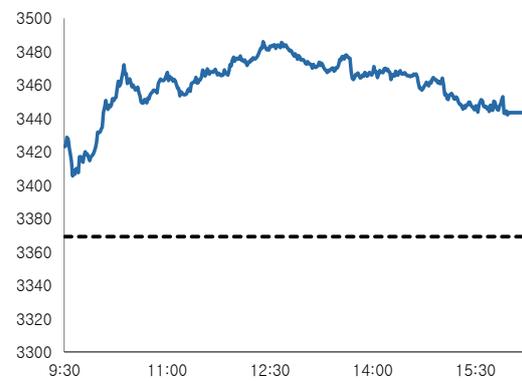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상원 공화당 우위 영향

미 증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법적 다툼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이는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법인세 인상 우려가 완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 한편, 기술주와 제약주, 헬스케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 국채금리 급락으로 금융주는 부진하고 산업재도 약세를 보이는 등 업종 차별화도 특징(다우 +1.34%, 나스닥 +3.85%, S&P500 +2.20%, 러셀 2000 +0.05%)

미 대선 결과가 최악의 시나리오인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아짐. 선거인단 10 석의 위스콘신과 16 석의 미시간이 우편투표 개표가 이어지자 바이든 후보가 역전. 이로 인해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트럼프가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마찰이 격화되는 경향. 이는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확산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평가사인 S&P 와 피치가 언급했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높임. 물론 무디스는 이를 통해 신용등급의 영향은 없다고 발표해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우려는 지속. 이런 가운데 상원 선거 결과 민주당이 47~49 석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원은 공화당이 우위를 가질 것으로 전망.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을 보여줌. 물론 법인세 인상 등 세금 정책 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이렇듯 시장이 기대했던 ‘블루웨이브’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독점 금지법과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완화되며 대형 기술주들이 급등. 한편, 시장이 기대했던 대규모 부양책이 진행될 가능성이 약화되고 대선 불확실성이 확산되자 미 국채금리가 급락 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주가 약세를 보인 점도 특징. 더불어 인프라투자과 관련된 기계 업종과 산업재가 약세를 보였으나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헬스케어 업종이 급등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 지속. 당분간 시장은 대선 결과 및 법적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듯. 이와 함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증시 주변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변동성 확대 전망을 높임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명	Close	D-1	지수명	Close	D-1
KOSPI	2,357.32	+0.60	홍콩항성	24,886.14	-0.21
KOSDAQ	826.97	+1.04	영국	5,883.26	+1.67
DOW	27,847.66	+1.34	독일	12,324.22	+1.95
NASDAQ	11,590.78	+3.85	프랑스	4,922.85	+2.44
S&P 500	3,443.44	+2.20	스페인	6,781.90	+0.45
상하이종합	3,277.44	+0.19	그리스	588.24	+0.64
일본	23,695.23	+1.72	이탈리아	19,358.28	+1.9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강세

페이스북(+8.32%), 알파벳(+6.09%), 아마존(+6.32%), 애플(+4.08%), MS(+4.82%) 등 대형 기술주는 이 공화당이 상원 승리하자 기존의 세금 정책 변경, 즉 법인세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자 급등 했다. 유나이티드 헬스(+10.33%), 휴마나(+6.75%) 등 헬스케어 업종은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급등 했다. 반면, JP모건(-3.06%), BOA(-4.09%)는 물론 키코프(-8.93%) 등 은행주들은 대선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국채금리가 급락했으며, 이 영향으로 하락했다. 캐터필라(-7.43%), 3M(-3.23%) 등 기계 및 산업재의 경우는 대규모 부양책 가능성이 약화되자 매물 출회되며 급락했다.

바이오젠(+43.97%)은 FDA가 알츠하이머 약을 승인할 자료가 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일라이 릴리(+13.44%), 화이자(+3.15%), 길리어드 사이언스(+1.77%) 등은 트럼프가 제시했던 급진적인 약가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자 상승했다. 우버(+14.59%)와 리프트(+11.28%)는 이번 선거에서 임시고용 운전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표결이 승인되자 상승했다. AMD(+6.23%)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36%	대형 가치주 ETF(IVE)	+0.32%
에너지섹터 ETF(OIH)	-0.86%	중형 가치주 ETF(IWS)	-0.73%
소매업체 ETF(XRT)	-0.25%	소형 가치주 ETF(IWN)	-2.09%
금융섹터 ETF(XLF)	-1.17%	대형 성장주 ETF(VUG)	+4.07%
기술섹터 ETF(XLK)	+3.89%	중형 성장주 ETF(IWP)	+3.6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4.76%	소형 성장주 ETF(IWO)	+1.90%
인터넷업체 ETF(FDN)	+4.87%	배당주 ETF(DVY)	-2.23%
리츠업체 ETF(XLRE)	+0.28%	신흥국 고배당 ETF(DEM)	+1.40%
주택건설업체 ETF(XHB)	+2.6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2.19%
바이오섹터 ETF(IBB)	+6.04%	미국 국채 ETF(IEF)	+0.84%
헬스케어 ETF(XLV)	+4.44%	하이일드 ETF(JNK)	+0.89%
곡물 ETF(DBA)	+0.41%	물가연동채 ETF(TIP)	+0.17%
반도체 ETF(SMH)	+3.67%	Long/short ETF(BTAL)	+2.1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23.45	+0.16%	+6.56%	-2.35%
소재	409.83	-1.65%	+5.36%	-0.21%
산업재	670.97	-0.99%	+6.10%	-0.32%
경기소비재	1,237.02	+3.14%	+3.31%	+0.08%
필수소비재	660.78	+0.06%	+2.90%	-0.92%
헬스케어	1,277.71	+4.45%	+7.04%	+2.51%
금융	407.42	-1.27%	+3.84%	-1.41%
IT	2,066.85	+3.83%	+5.44%	-0.28%
커뮤니케이션	207.99	+4.25%	+7.78%	+6.57%
유틸리티	323.47	-1.59%	+1.39%	+2.05%
부동산	220.98	+0.28%	+5.12%	-2.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MSCI 한국 지수 ETF 는 2.03% MSCI 신흥 지수 ETF 는 3.14%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9.45 원을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바이든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먼저 바이든의 승리 가능성은 무역과 관련된 조치들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긍정적이다. 특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경우 다자주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보다 무역과 관련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다. 지난 대선 불복이 있었던 2000년 부시와 엘 고어 당시처럼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이 기대하고 있었던 대규모 부양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상원을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 하려면 공화당과 합의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등은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나 호재와 악재의 영향으로 변화폭이 큰 가운데 개별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과 서비스업지표 둔화

10월 미국 ADP 민간 고용은 전월(74.9 만건)이나 예상(65 만건)을 크게 하회한 36.5 만건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고용 개선 속도가 느려 졌고, 특히 건설 고용 증가가 6 만건에서 7 천건 증가에 그친 점이 특징이다.

10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7.8)이나 예상(57.5)을 하회한 56.6 으로 발표되었다. 신규수주가 61.5에서 58.8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용지수도 51.8에서 50.1로 감소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9월 미국 수출은 전월 대비 2.6% 증가 했고 수입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무역적자 폭이 전월 대비 4.7% 감소한 638.6억 달러를 기록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미 국채금리, 지표 부진, 대선 불확실성으로 급락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재고에 대해 80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OPEC+ 국가들의 감산 기간 연장과 규모 확대 기대가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일부 주에서 바이든에 역전을 허용하자 약세로 전환했다. 특히 역외 위안화가 달러 대비 0.84% 강세를 보였다. 한편, 미 대선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약세폭이 축소되었으며, 엔화는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영국의 경제 봉쇄 소식으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지표 부진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급락했다. 더불어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약화되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및 국제유가 급등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1%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39.15	+3.96	+4.71	Dollar Index	93.460	-0.10	+0.06
브렌트유	41.23	+3.83	+4.01	EUR/USD	1.1724	+0.08	-0.19
금	1,896.20	-0.74	+0.90	USD/JPY	104.52	+0.03	+0.19
은	23.893	-1.81	+2.29	GBP/USD	1.2982	-0.59	-0.01
알루미늄	1,908.50	+0.16	+5.47	USD/CHF	0.9121	-0.07	+0.18
전기동	6,837.50	+0.32	+1.33	AUD/USD	0.7182	+0.25	+1.94
아연	2,593.50	+1.05	+2.55	USD/CAD	1.3127	-0.13	-1.47
옥수수	405.25	+1.06	+0.93	USD/BRL	5.6656	-1.50	-0.71
밀	606.00	-0.33	-0.45	USD/CNH	6.624	-0.88	-1.55
대두	1,086.25	+2.07	+2.99	USD/KRW	1137.70	+0.32	+0.63
커피	103.00	-0.43	-1.90	USD/KRW NDF1M	1129.45	-0.18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766	-13.31	-0.48	스페인	0.089	-1.90	-8.70
한국	1.565	-4.00	+6.80	포르투갈	0.062	-1.70	-8.50
일본	0.038	-0.70	+1.30	그리스	0.851	-3.90	-19.70
독일	-0.638	-1.80	-1.30	이탈리아	0.686	-4.70	-7.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